즉시 배포용: 2019년 4월 30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영사관 및 종교 기관의 이민자 서비스 제공 프로그램 발표

노던 맨해튼 이민자 권리 동맹(Northern Manhattan Coalition for Immigrant Rights, NMCIR), 자유 수호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 LDP)와 함께 뉴욕시 영사관 및 종교 센터에서 취약한 이민자가 필요한 필수 서비스 제공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시 영사관 및 종교 기관에서 무료 법률 서비스, 이민 클리닉, 자기 권리 알기 세미나, 기타 이민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국내 최초 주지사의 자유 수호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와 노던 맨해튼 이민자 권리 동맹(Northern Manhattan Coalition for Immigrant Rights) 간의 획기적 파트너십으로, 해당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이러한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는 가장 취약한 이민자들에게 닿을 것입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방 정부가 이민자들이 여기로 이주하는 것이 더욱 어렵도록 정책을 만드는 동안 뉴욕주는 항상 다양성이 우리의 가장 큰 힘이라는 것과 경제적, 문화적으로 그 유산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관심사임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민자의 나라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이민 가족들이 불공평하게 표적이 되고 희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가장 취약한 뉴욕 주민 일부가 안전하고 힘을 주는 공간에서 필요한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 것입니다."

Kathy Hochul 부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 수호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는 뉴욕 이민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도움을 주어 그들의 권리와 보호책을 보장할 것입니다. 노던 맨해튼 이민자 권리 동맹(Northern Manhattan Coalition for Immigrant Rights)과의 파트너십으로 뉴욕시 영사관과 종교 센터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뉴욕주에서 가장 취약한 이민자도 자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많은 이민자는 연방 정부 정책, 비도덕적 고용주, 비양심적인 변호사, 및/또는 변호사인체 하는 사람들, 이민자를 나쁘게 묘사하려 하는 사람들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새 뉴욕 주민은 무료 법 전문가의 도움이 시급하나 이러한 서비스에 직접 접근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민자 가족과 개인은 종종 교회, 모스크, 시너고그, 불당의 피난처가 제공하는 은신처 및 지도가 필요하며 모국 관련 일을 볼 수 있는 뉴욕 기반 영사관이 필요합니다. Cuomo 주지사의 자유 수호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는 안전하고 힘을 주는 환경에 있는 이러한

커뮤니티에 닿기 위해 노던 맨해튼 이민자 권리 동맹(NMCIR)과 협력하여 해당 지역에서 직접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노던 맨해튼 이민자 권리 동맹(NMCIR)은 노던 맨해튼, 브롱크스,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브루클린, 퀸즈에서 수십 년간 이민자 지역사회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던 맨해튼 이민자 권리 동맹(NMCIR)은 가장 수입이 적은 이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며 안전한 장소로 생각되는 단체들과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유 수호 프로젝트(LDP)와 노던 맨해튼 이민자 권리 동맹(NMCIR)의 공동 피난처 프로그램(Safe Haven Program)은 뉴욕시에서 신뢰 있는 법정 대리인에게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해당 계획을 확장합니다.

영사관

뉴욕시에는 전 세계 100개국 이상의 영사관이 있으며 440만 외국 출생 뉴욕 주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시설은 여권 갱신, 이민 신청 완료 서류를 비롯하여 서비스가 필요한 이민자들의 피난처입니다. 뉴욕주 이주자 지원국(NY State Office for New Americans) 자료에 따르면 외국 출생 뉴욕주 거주민의 상위 10개 출생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미니카 공화국
- 중국
- 자메이카
- 멕시코
- 에콰도르
- 가이아나
- 인도
- 아이티
- 엘살바도르
- 콜롬비아

자유 수호 프로젝트(LDP)와 노던 맨해튼 이민자 권리 동맹(NMCIR)은 피난처 프로그램(Safe Haven program)을 통해 위에 명시된 상위 국가 출신 이민자를 포함하여 도움이 필요한 취약한 이민자가 안전한 공간에서 법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영사관이 제공하는 피난처 프로그램(Safe Haven Program)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상근 변호사의 일대일 이민 상담:** 노던 맨해튼 이민자 권리 동맹(NMCIR)의 상근 변호사 및 준법률가는 현장에서 정기 법률 상담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영사관에서 자국민 및 영사관 직원 모두에게 시행하는 자신의 권리 알기 세미나 및 교수자 교육 워크숍:** 노던 맨해튼 이민자 권리 동맹(NMCIR)은 이민세관단속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이 집에 찾아올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경제 및 가족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사기 *공증인*/변호사로부터 자신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관한 워크숍을 제공합니다.
- **무료 법률 지원 및/또는 대리인이 필요한 이민자를 노던 맨해튼 이민자 권리 동맹(NMCIR) 및 기타 이주자 지원국(Office for New Americans) 협력자에게 추천하는 프로그램:** 노던 맨해튼 이민자 권리 동맹(NMCIR)은 이민 관련 문제가 있는 국민들을 효과적으로 조회하는 훈련 및 자료를 편성하고 제공할 예정입니다.

종교 기관

뉴욕시에는 이민자 회중에게 안식처를 제공하는 교회, 모스크, 시너고그, 불당을 포함하여 다양한 종교 기관이 수백 개 있습니다. 피난처 프로그램(Safe Haven Program)은 이러한 단체들과의 관계를 조성하고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해당 기관에서 제공할 예정입니다.

- **법률 서비스에 공식 추천을 하는 프로그램:** 피난처 프로그램(Safe Haven Program)은 이민 관련 문제가 있는 지역사회 일원을 최선으로 추천하는 훈련 및 자료를 편성할 예정입니다.
- **이민자 심사 종일 클리닉:** 노던 맨해튼 이민자 권리 동맹(NMCIR)은 도움이 필요한 많은 이민자에게 접근하기 위하여 종교 기관에서 현장 이민 심사 클리닉을 열 예정입니다.
- **국경에서 헤어진 가족이 다시 만나도록 노력하는 종교 기관용 법률 대리:** 많은 종교 기관은 이미 이민자의 권리를 활발히 지원하고 있으며 가족의 재결합을 돕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관이 법적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식별하면 자유 수호 프로젝트(LDP) 및 노던 맨해튼 이민자 권리 동맹(NMCIR)이 법률 대리를 제공합니다.

자유 수호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 및 이주자 지원국(Office for New Americans)을 감독하는 Rossana Rosado 뉴욕주무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민자들은 영사관과 교회에서 피난처와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이 바로 주정부가 이러한 기관과 협력하여 취약한 가족 및 개인이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이유입니다. Cuomo 주지사님은 주정부가 뉴욕에서 이민자가 성공하도록 돕고 싶어 한다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주정부는 노던 맨해튼 이민자 권리 동맹(Northern Manhattan Coalition for Immigrant Rights)의 전문가와 함께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장소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노던 맨해튼 이민자 권리 동맹(Northern Manhattan Coalition for Immigrant Rights)의 Alba Villa 이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던 맨해튼 이민자 권리 동맹(NMCIR)은 접근하기 힘든 인구에게 오랫동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민자 지역사회를 위해 안전한 공간이라고 생각되는 단체들과 깊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피난처 프로그램(Safe Haven Program) 덕분에 서비스를 확장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믿을 수 있는 법률 대리가 필요한 접근하기 힘든 인구에게 영사관 및 종교 기관 등을 통해 대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Luis Sepúlveda 뉴욕주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이민자를 환영하며 그들의 가치와 다양한 문화를 포용합니다. 새 피난처 프로그램(Safe Haven program)은 새 뉴욕 주민에게 필요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 은신처를 찾고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안전한 장소를 제공합니다. 수많은 이민자들이 우리의 훌륭한 주에서 진정으로 편안함을 느끼도록 도울 중요한 계획을 만들어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감사드립니다."

Maritza Davila 뉴욕주 하원의원 겸 푸에르토리칸/히스패닉 전담팀(Puerto Rican/Hispanic Task Force)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유 수호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는 이미 수많은 이민자 가족이 필요한 법률 서비스로 정당한 법 절차를 밟고 가정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피난처 프로그램(Safe Haven Program)을 만들기 위한 이 획기적인 파트너십으로 성공적인 활동을 확장하고 가장 취약한 이민자 일부를 대상으로 하여 뉴욕에서 그들이 안전하고 환영 받는다고 느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뉴욕이 모든 사람을 수용하는 희망의 등불을 유지하도록 지치지 않고 노력하시는 Cuomo 주지사님께 찬사를 보냅니다."

Victor Pichardo 뉴욕주 하원의원 겸 이주자 전담팀(Task Force on New Americans) 회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은 오랫동안 여기 브롱크스의 많은 이웃 같은 이민자들을 환영하고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피난처 프로그램(Safe Haven Program)으로 우리는 취약한 지역사회에서 그 어느때보다도 더 많은 이민자에게 닿고 있으며 그들이 집에 머무는 데 필요한 자원을 얻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에서 수많은 이민자 가족의 삶을 바꿀 이 파트너십을 만들어주신 Cuomo 주지사님께 갈채를 보냅니다."

Carlos Castillo 도미니카 공화국 뉴욕 총영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미니카 공화국 총영사관은 Cuomo 주지사님, 우리 지역사회의 소중한 기관인 노던 맨해튼 이민자 권리 동맹(NMCIR) 간의 파트너십을 환영합니다. 우리 국민의 이익과 전체 이민자 지역사회를 위해 안정적이고 안전한 저희 영사관 공간에서 무료 법률 도움 및 지원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Lisa Bryan Smart 자메이카 총영사관 대행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자메이카 영사관은 Andrew M. Cuomo 주지사의 자유 수호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와 노던 맨해튼 이민자 권리 동맹(Northern Manhattan Coalition for Immigrant Rights) 간

파트너십에 대하여 더 많이 듣기를 기대합니다. 저희는 뉴욕에서 우리 이민자 지역사회가 처한 어려움을 해결할 창의적인 방법을 찾고 지원하는 데 관심이 많습니다. 서비스가 부족한 지역사회에 힘을 주려면 모든 이해당사자에게 혜택을 주는 파트너십이 매우 중요합니다."

Carlos Gerardo Izzo 멕시코 총영사관 공무 영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멕시코인들의 웰빙을 지키기 위해 부여된 강력한 권한에 따라 뉴욕에 있는 멕시코 총영사관은 계속해서 주 및 시 기관과의 동맹을 강화하여 뉴욕에서 커지고 있는 우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멕시코 출신을 포함한 많은 이민자들이 뉴욕시 영사관 및 종교 기관에서 무료 법률 서비스, 이민 클리닉, 자기 권리 알기 세미나, 기타 유용한 자원을 받도록 보장하신 Cuomo 주지사님의 투지와 모범적 헌신을 인정합니다."

단체들과 맺은 모든 계약은 주 감사관실(Office of the State Comptroller)의 검토 및 승인에 따릅니다.

이주자 지원국(Office for New Americans) 및 자유 수호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 소개

5년 전 설립된 뉴욕주 이주자 지원국(Office for New Americans)은 국내 최초로 법적으로 설립된 이민 서비스 사무실입니다. 이주자 지원국(ONA)은 주 전역에 기회 센터(Opportunity Centers)가 있어 서비스와 지원을 하는 지역사회 기반 단체를 수용합니다. 이는 뉴욕의 새 미국인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법률 서비스, 사업체 지원을 포함합니다. 이 장소들은 지역사회에 초점을 두고 이민자가 번영하고 주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이민자를 포용합니다.

2017년 Cuomo 주지사가 개시한 자유 수호 프로젝트(Liberty Defense Project)는 신분과 관계없이 이민자의 법률 서비스 및 절차에 대한 권리 획득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최초로 주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민간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이주자 지원국(ONA)이 관리하며, 법률 회사, 법률 협회, 옹호 단체, 주요 단과 대학교 및 종합 대학교, 변호사협회(bar associations) 등과의 공조 하에 운영됩니다. 자유 수호 프로젝트(LDP)는 다음을 제공합니다.

- 뉴욕주 전역의 이민자를 위한 무료 법률 상담 및 심사 정보.
- 국외 추방 절차와 더불어 기타 사건에서 이민자를 직접 대변하는 업무.
- 기타 이민 법률 서비스 지원, 특히 복잡한 문제 지원.
- 이민자 및 지역사회를 위한 자기 권리 알기(Know Your Rights) 교육 제공

무료 법률 지원이 필요한 이민자는 이주자 직통 전화 1-800-566-7636으로 전화하시길 촉구합니다. 모든 전화 내용은 기밀입니다. 200개 이상 언어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노던 맨해튼 이민자 권리 동맹(Northern Manhattan Coalition for Immigrant Rights)에 관하여

노던 맨해튼 이민자 권리 동맹(Northern Manhattan Coalition for Immigrant Rights)은 노던 맨해튼과 브롱크스에서 이민자 관련 법률 서비스, 교육, 변호를 제공함으로써 특히 가족이 함께 살도록 유지하는 데 집중하여 가장 오랫동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지난 10년간 노던 맨해튼 이민자 권리 동맹(NMCIR)의 범위권은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브루클린, 퀸즈를 포함하도록 확장하고 있습니다.

1982년 이래 20만 명 이상의 고객이 노던 맨해튼 이민자 권리 동맹(NMCIR)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고객은 전 세계에서 온 저소득 이민자입니다. 노던 맨해튼 이민자 권리 동맹(NMCIR)은 이민자 지역사회를 위해 안전한 공간이라고 생각되는 단체들과 깊은 관계가 있어, 접근하기 어려운 인구에게 서비스를 잘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 중 약 90%는 연방 빈곤 수준(Federal Poverty Guidelines)의 한계점에서 200% 또는 그 이하에 해당합니다. 저희 고객 중 50%를 약간 넘는 수가 고용된 상태입니다. 일자리가 있는 여성 고객의 대다수는 재택 건강 보조원, 유모, 식당 직원으로 일하며 15,000 달러에서 20,000 달러 사이의 연간 평균 월급을 받습니다. 일자리가 있는 남성 고객은 주로 식당 직원, 택시 운전사, 건물 관리인, 건설 노동자, 소기업 소유자(사업가)이며 20,000 달러에서 25,000 달러 사이의 연간 평균 월급을 받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